

진정서

진정인: 김명호

서울시

전화 번호:

피진정인: 대법원장 이용훈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서초로 219)

제목: (서울 행정법원 2005구합33142 사건의) 권순일 승진 판사의 직무태만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진정인은, “사법개혁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다니”(로이슈, 2005년 12월 2일자)라는 기사가 대법원장님의 진심이기를 믿고 싶어하는 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진정인 사건 담당재판부(서울 1행정부) 권순일 판사의 조치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위함입니다.

2월 1일자 대법원 인사발표에 의하면,

권순일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2월 13일자 발령) 인사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틀후인 2월 3일, 권판사는 진정인의 변론기일(2월 9일)을 연기한다고 통보 하였는 바, 이러한 권판사의 조치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발령 직후의 (새로 부임하는 재판부의)재판일정은, 사건기록 검토시간이 필요하니, 일정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인사발령 전의 (그 동안 일해왔던 재판부의)재판 일정까지도 미룰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이 한 달입니다.

대법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힘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힘없는 서민에게 있어서 공정한 재판결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한 재판 진행입니다. 특히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재판지연은 서민들에게 고문인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재판지연하는 판사

들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8

위 진정한 김명호